

한국문화 정신의 깊이, 한·중·일 문화의 차별성 확인시키는 계기 만들 터

-조직위원장 중량급 인사 영입, 콘텐츠에 따라 과감한 예산 지원



2005년 프랑크푸르트 주빈국 준비기획단을 맡고 있는 이보경 씨(47·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는 단아한 체구에 어깨가 산맥처럼 솟아 있는 단구지사短軀志士형 문화정책 전문가다. 언뜻 보기에 그의 체형은 럭비 포지션의, 가장 작은 체구로 그라운드를 지휘하는 하프 백 선수를 닮아 있다. 그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현장을 방문해 러시아 주빈국관을 세심히 관찰한 후 밝은 일성은 '적어도 러시아보다는 잘 할 수 있다는 필feel이 꽃혔다'는 것이다. 러시아 문화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사 콘텐츠를 입체화하는 데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고, 그런 점을 교훈삼으면 한국문화를 유럽에 각인시키는 데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우선, 주빈국 행사를 예산에 얽매어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에 있어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경제적 화두가 선풍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질을 담보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마땅하죠. 이런 점에 대해 문화관광부 전체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이창동 장관 역시 문화관광부 전체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이창동 장관과 이른바 '코드'가 맞는다. 이 단장은 한국의 문

화산업 콘텐츠 중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게임이라고 단언하는 문화산업현장 중시형이고, 이 장관 역시 소설과 영화에서 체득한 현장정신이 강하기 때문이다. 문화에서도 '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란 비유가 가능한 대목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장감각, 중심이 잡히면 밀고 나가는 정신은 자신을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존중해야 할 덕목이라고 말했다.

"주빈국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구체화할 내용이지만, 몇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저 100권은 예산까지 확보한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음악분야 역시 한국고유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개할 것이나 현대화해 갈 것이냐, 독일음악과 연계해 퓨전화할 것이냐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의 성격이 결정되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는 출판의 경우도 동일선상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독일에서 김치 이벤트가 큰 관심을 모았다는 얘길 듣고 한국의 음식문화 이벤트 필요성을 감지했다고 밝힌 그는 음식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전통음식에 대한 출판물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전시의 입체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유럽인들이 자연스레 동양문화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판단이

다. 관광 역시 그가 볼 때 좋은 아이টে이다. 유럽 사람들이 검소한 생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행할 때는 과감하게 지갑을 연다는 점을 파고들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주 경주 안동,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등의 관광명소 미니언처를 만들어 보여주고, 그곳의 문화적 의미를 소개한 책을 전시하면 1.2년 후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되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주빈국 행사를 위해 예산을 쏟아붓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되돌리는 물꼬까지 만드는 중장기적인 주빈국 행사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럽인들은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동일시하거나 유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확실히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역동성, 우리 정신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연스럽게'가 중요합니다. 문화란 게 목청을 높인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입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습니까."

여기서 그의 독특한 문화정책론이 나온다. 그것은 이미지image다. 한국주빈국관을 찾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강렬한 이미지, 정신의 깊이를 존중하는 이미지,



이보경 단장은 러시아 국가관·주빈국관을 자세히 둘러본 후 '2005년에 러시아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사진은 러시아 국가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감안, 그는 조직위원회 내에 독일과의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부서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때 가서 허겁지겁 한국문화의 이미지를 급조하기보다는 2년 내내 자분자분 보여 주고 들려줌으로써 한국주빈국 행사를 그들 스스로 기다리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한 상품이라고 그는 말했다.

"11월 19일 풀커 노이만 독일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방한합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조직위원회가 출범해야 양국 위원장이 마주앉아 파트너십에 의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측 위원장은 장관 혹은 부총리에 버금가는 중량급 인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원장 후보의 면면을 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직접 챙기고 있다'고 대답했다가 '장관과 행정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문을 받아 장관이 독단으로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슬며시 웃고 지나갔다. 그는 또한 2005년 주빈국 행사를 제대로 치르려면 전체 조직위원이 20명은 돼야 할 것이라면서 조직위 내에 도서전본부, 번역출판본부, 예술공연본부, 학술전시본

부 등 4개 본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조직기반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예산을 뒷받침하되 민간기업의 경우 투자한 예산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 바탕에는 '문화산업이 기업에 손 벌려서 국제행사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그의 문화행정론이 깔려 있다.

"출판계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웬만한 행사라면 각 출판사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2005년 주빈국행사에는 출판사들이 힘을 합쳐 한국출판공동체의 역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외국 출판물을 받아들이는 형국이었지만 앞으로는 우리 출판물을 들고 나가는 시대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나라의 문화총체성이 활자와 문자에서 나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게다가 주빈국 행사는 뭐니뭐니해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기반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출판문화협회 내에 두려는 것도 이런 맥락이지요."

이 단장은 이런 점을 총합할 때 2005년 주빈국 예산은 100억 원 안팎이 되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추정하면서 러시아 일본 등 기왕의 주빈국가들이 얼마의 예산을 썼는가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이 이처럼 과감한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장관을 비롯 문화관

광부 전 직원이 2005년 주빈국 행사를 한국문화의 유럽진출 최고무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 문화가 단편적인 행사를 통해 유럽권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입체적으로 소개되는 것은 2005년이 첫 사례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기회에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004년 서울 국제도서전을 비롯 각종 도서전에서 2005년 주빈국 예행연습을 펼치는 등 다각도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필요하다면 한국 출판문화를 알리기 위해 <출판저널>의 일부 분량을 독일어판으로 내는 데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장을 직접 돌아보노 의욕이 솟는다고 다시 어깨에 힘을 주었다.

이 단장은 약관을 갓 넘긴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어령 문화부장관 비서관을 비롯 미국 뉴욕주립대 록펠러연구소 연구원, 국립현대미술관 사무국장,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한 전방위 행정관료로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정치와 행정'으로 잡기도 한 내무외강형 행정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그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담배를 꺼내 물었을 정도로 금연에는 관심이 없는 애연가다. ■